

# 영어 유성 자음의 경음 차용에 대한 한국어 음운제약 효과

오미라

(전남대)

**Oh, Mira. (2017). The effect of Korean phonological constraints on tensification of English voiced stop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2), 121-141. English voiced stops are variably adapted as either Korean tense or lax stops only when they occur in the word-initial prevocalic position in English. I argue that native phonology and phonetic similarity jointly play a role in English voiced stop tensification. Overrepresentation of the tense-tense sequence observed in the Korean lexicon is at work in the adaptation of English voiced stops as the tense stops in Korean. To prove the effect of the preferred tense-tense sequence on the adaptation of English voiced stops into Korean, I conducted a survey experiment where the extent of tense adaptation was measured depending on whether the following consonant is [s] or [s']. English voiced fricatives are not adapted as tense stops in Korean. That suggests that phonetic similarity between the source and the loan sounds is crucia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loanword adaptation.

**주제어(Key Words):** 영어유성자음(English voiced stops), 외래어 차용(loanword adaptation), 경음-경음 연쇄 선형화(overrepresentation of tense-tense sequence),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 한국어 사전(Korean lexicon).

## 1. 서론

외래어 차용에 대한 연구는 근원음의 어떤 단계를 차용언어 화자가 인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주로 집중되었다. 차용언어 화자가 음소이하 단계를 포함하여 근원음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차용음이 결정된다는 인지적 주장이 있다 (Silverman, 1992; Kang, 2003). 가령 영어에서 단어말 폐쇄음이 개방되느냐 여부는 음소가 아니지만 한국인이 영어말 폐쇄음을 차용할 때 모음을 삽입할 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ang, 2003). 예를 들어

‘pipe’에서 단어말 /p/는 개방되어 [파이프]로 차용되거나 ‘chapter’에서 /p/는 자음 앞에서 개방되지 않아 모음삽입이 일어나지 않고 [챕터]로 차용된다. 한편 차용음운론에 대한 음운적 접근방식에서는 근원음의 음성적 실체보다는 음운적 역할이 중요하다 (LaCharité & Paradis, 2005). 영어에서 이완모음인 /ɪ/와 /ʊ/가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의 /e/와 /o/에 음성적으로는 더 비슷하지만 음운체계상 /i/와 /u/로 각각 차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지적 접근방식 또는 음운적 접근방식은 모두 외래어 차용이 근원어와 차용어간의 음성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음성적 유사성 이외에도 철자를 근거로 외래어 차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Vendelin, 2006; Daland et al., 2015). 자음에 비해 모음을 차용하는 경우 철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다. ‘academy’ [əˈkædəmi]는 한국어에서 [아카데미]로 차용된다. 이 경우에 슈와 모음 [ə] 뿐만 아니라 강세 받은 [æ] 모음까지도 영어 철자에 따라 차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래어 차용은 음성적 유사성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철자가 특히 역할을 하는 경우는 음성단서가 확실하게 인지되지 않아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차용음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이다 (Daland et al., 2015).<sup>1)</sup> 결국 외래어 차용은 음성산출과 인지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용언어 화자가 근원음을 인지하는데 있어 어느 단계의 음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용음을 결정하는데 차용국어의 음체계와 음운현상도 중요하다 (Hyman, 1970; Kawahara, 2008). 본 논문에서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경우를 분석하여 근원음의 음성적 실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음소배열제약과 음운현상이 차용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영어 폐쇄음을 차용할 때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어 무성 폐쇄음은 위치와 관계없이 한국어에서 격음으로 차용되고 영어 유성 폐쇄음은 위치와 관계없이 한국어에서 평음으로 차용된다.<sup>2)</sup>

(1) a. 영어 무성 폐쇄음 차용

단어초:	‘pie’	[파이]
단어 중간:	‘happy’	[해피]
단어말:	‘hip’	[히프] ~ [힙]

1) Daland et al. (2015)은 정보이론을 사용하여 외래어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가설(Uncertainty hypothesis)을 제안한다. 영어 비강세 모음인 [ə]처럼 음성적 유사성에만 기반을 두게 되면 특정한 차용음을 결정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철자에 근거해서 차용한다는 것이다.

2) 영어 무성 폐쇄음은 음절말 위치에서 ‘hip’ [힙]처럼 /p/ 다음에 모음 삽입 없이 평음으로 차용되기도 한다.

b. 영어 유성 폐쇄음 차용

단어초:	'best'	[베스트]
단어 중간:	'lobby'	[로비]
단어말:	'gag'	[개그]

그런데 영어 유성 폐쇄음은 경음으로 차용되기도 하는데 (2)에서 보듯이 유성음이 단독으로 어두에 올 때이다.

(2)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 차용

a. 어두에서만:	dam [댐] ~ [댄]	vs. pedal [페달] * [페달]
b. 단일 어두음에서만:	dam [댐] ~ [댄]	vs. drum [드럼] * [뜨럼]

이와 같이 어두 위치에서만 영어 단일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선 어느 정도로 경음화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 이종극 (1937)의 1930년대 외래어 사전을 분석해 보면 79%가 경음 차용도를 보인다 (Kim, 2003). 현대에 들어와서 영어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은 20% 내외이다. 예를 들어 Kang (2008)의 연구에서는 19.1%, Oh (2009)의 연구에서는 18.2%, 그리고 Kim (2016a)에서는 13%의 경음화를 보인다.<sup>3)</sup> Kang (2008)의 연구에서는 저자 한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여 경음화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Oh (2009)에서는 20명의 한국인 화자가 참가한 판단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Kim (2016a)은 국립국어원 (2007)의 데이터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이 어두에 오는 310개의 외래어를 대상으로 한국인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음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영어를 한국어에 차용할 때 경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표기법 1985) 이처럼 현대어에서도 영어유성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국어 전체어휘에서 외래어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38년 [우리말사전]의 어휘 수는 81,478개인데 그 중 외래어수는 1,677개로 2.1%이던 것이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수가 440,262개이고 외래어수는 23,196개로 5.25%를 차지하였다 (김숙자, 2007: 170). 이와 같이 계속 증가하는 외래어는 한국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래어 차용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 차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비교분석한다. Kim (2016a)은 한국어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선호되어 영어 어두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음절에 [쓰]이 오

3) Kang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음화율은 데이터에서 자음군에 나타나는 어두 유성자음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에 Oh (2009)와 Kim (2016a)은 모음 앞의 어두 유성 자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는 경우만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3장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쓰]과 [시]이 오는 경우를 구분하여 한국어 어휘 사전에 나타나는 음소배열 제약이 유성 자음 경음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후행 자음이 /쓰/인 경우와 격음 폐쇄음인 경우를 비교하여 유성 자음 경음화에서 음소배열 제약의 역할을 증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음소배열제약 효과가 외래어차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경음-경음 선호제약이 출력형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2. 영어 유성 자음의 경음 차용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2.1. 일본식 영어 외래어 간접차용 분석

신승용 (2003)은 영어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은 일단 영어가 일본어로 차용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한국어에 차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banana’를 [바나나]로 차용한 것은 영어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고 [뽀나나]로 차용한 것은 일본어를 통해 한국어에 간접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Oh (2009)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간접차용 분석을 반박한다. 첫째, 영어 유성자음은 일본어에서 유성자음으로 차용된다. 그리고 일본어 유성 자음은 한국어에서 평음으로 차용되기 때문이다 (Kang, 2008; Ito et al., 2006). 일본어에서 /gara/가 한국어에서 /kara/로 차용된다 (Ito et al., 2006). 둘째, 영어와 일본어투의 차용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외래어에서 자음은 직접 차용한 형태를 취해도 모음은 일본어투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Kang et al., 2007). 그런데 ‘bus’가 [뽀스]로 차용된 경우는 모음 [어]가 외래어에 사용되면서도 영어 유성 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영어 유성 자음이 일본어의 영향을 안 받고 직접 경음으로 차용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가령 ‘meter’를 영어에서 직접 차용한 것은 [미티]이고 일본어를 통해서 간접 차용한 것은 [메타]이다. 그런데 영어와 일본어식 외래어가 혼합된 형태는 [메타]이지 \*[미티]로는 차용되지 않는다 (Kang et al., 2007). 즉 \*[미티]가 불가능한 것은 일본어에 없는 모음인 [어]로 영어 모음을 차용한다는 것은 영어 자음을 이미 직접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영어 단어 중간 무성자음을 한국어에서 격음인 [티]로 차용하고 [디]로 차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bus’가 [뽀스]로 차용되어 [어] 앞에서 영어 유성자음 [b]를 경음인 [뽀]로 차용한다는 것은 영어 유성 폐쇄음 경음차용이 일본어를 통한 간접차용의 결과가 아님을 말해 준다. 셋째, 일본어 영향을 덜 받은 외래어에서보다 일본어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외래어에서 어두 경음 차용이 반드시 더 일어나지는 않는다 (Kang, 2008). Kim (2016a)에서 보듯이 [땡크슛] ‘dunk shot’, [뽀트] ‘bunt’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 일본어를 거치지 않고 영어에서 직접 차용한 외래어에서도 여전히 영어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은 경음 차용이 일본어를 통한 간접차용의 결과만으로 볼 수 없다.

## 2.2.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분석

외래어 차용에 대한 인지적 접근방식은 근원음과 차용음간의 음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외래어 차용을 분석한다. 1930년대 외래어에서는 80% 정도로 단어초 영어 유성 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던 것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20% 이하로 경음 차용율이 떨어진다 (Kim, 2003; Kang, 2008; Oh, 2009). (3)의 예처럼 현대 한국어에서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 외래어도 1930년대 외래어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보인다.

### (3) 이종극 (1937)

- a. gear --> 끼어  
     design--> 띠자인  
     beaker--> 뽀커  
     biscuit--> 뽀스켈 ~ 비스켈(도)
- b. drill --> 드릴  
     bridge --> 뿌리드  
     broker --> 뿌로카 ~ 부로커  
     brush --> 뿌러시  
     drop--> 드륵

특히 현대 한국어에서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후행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지만 (3b)의 예에서처럼 1930년대에서는 경음으로 차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에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Kang (2008)은 음성단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지적 유사성으로 설명한다. 1930년대의 경우에는 한국어 평음과 경음의 VOT(성대진동개시 시간)가 비슷하게 짧았다. 영어 유성 폐쇄음의 VOT가 짧아서 한국인은 영어 유성 폐쇄음을 들었을 때 한국어 평음이나 경음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어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이나 평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어중에 나오는 영어 유성 폐쇄음은 자음구간 길이와 유성성에서 한국어 평음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930년대 영어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된 것을 VOT 유사성으로 설명한 분석은 유성 폐쇄음이 단어말에서는 왜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Oh, 2009). 만일 영어 유성 폐쇄음의 VOT가 짧아서 한국어 경음과 비슷하여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었다면 단어말 유성

자음도 경음으로 차용되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 유성 폐쇄음이 80% 가량 경음으로 차용되었던 이종극 (1937)의 자료에서도 단어말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된 예는 없다.

(5) 이종극 (1937)

guard [까드], \*[까뜨], guide [까이드], \*[까이뜨], gold [폴드], \*[폴뜨], dead [떼드], \*[떼뜨]

(5)의 예에서 보듯이 단어초 유성 자음은 경음으로 차용되나 단어말 유성자음은 결코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Kang (2008)은 이것을 한국어 폐쇄음의 음성 단서가 시대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VOT가 짧았던 평음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격음과 유사하게 VOT가 길어지면서 두 자음을 구별해 주는 음향 단서가 VOT에서 F0로 바뀌었다 (Silva, 2006; Kim et al., 2002). 이에 1930년대에서는 VOT 유사성에 무게가 더 실려서 영어 유성 폐쇄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주로 차용되다가 현대에 와서는 영어 유성 자음 뒤의 낮은 F0 등 후행 모음의 음향 단서에 좀 더 무게를 두어 경음보다는 평음으로 차용된다는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해 Kang (2008)은 영어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이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은 한국인 폐쇄음의 음성 단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고 한국인 화자가 영어 유성 폐쇄음을 어떤 음성 단서에 맞춰 마땅한 차용음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어두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3b)에서 보듯이 1930년대에는 자음을 선행하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다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더 이상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 (Oh, 2009). 이 경우 유성자음 뒤에 모음이 오지 않아 F0 단서가 전혀 없어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VOT의 유사성만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경음 차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차용시기에 따라서 자음군에서 나타나는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지 여부는 VOT와 F0 단서간의 경쟁관계에서 어느 단서가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원음의 음성적 특징이 영어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영어 자음군의 첫 유성 폐쇄음은 현대 한국어에서 외래어로 차용될 때 경음화를 겪지 않는다 ('drama'[드라마] \*[뜨라마]). 자음을 선행하는 유성 자음의 VOT가 길기 때문에 VOT라는 원음의 음성적 속성이 외래어 차용음을 결정짓는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Oh, 2009). 즉, 영어 자음군의 첫 유성자음의 VOT가 길어서 한국어 경음으로 차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고모음보다는 비고모음 앞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 어두 경음

4) 한국어에서 평음을 후행하는 모음의 F0는 낮지만 격음과 경음 다음에서는 F0가 높다 (Silva 2006).

차용이 좀 더 일어난다 (Oh, 2009; Kim, 2016a). 이러한 후행 모음 효과는 영어 유성자음 차용, 한국어 어두 경음화 그리고 한국어 어휘 분석에서 모두 나타난다 (Kim, 2016b). Kim (2016b)은 이러한 후행모음 효과는 고모음 앞에서 영어 폐쇄음의 VOT가 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Klatt, 1975). 즉, 고모음 앞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의 VOT가 길어서 한국어의 경음으로 차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 경음화에 대한 후행 모음 효과는 한국어에서 경음 다음에서 후행모음이 더 길기 때문에 출력형 대 출력형간의 충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다 (Chung et al., 1999). 또한 영어 유성마찰음이 한국어에서 평음으로 차용되나 이렇게 평음으로 차용된 음은 경음화를 겪지 않는다 (venus [비너쓰], \*[뽀너쓰]). 즉, 근원음인 유성 마찰음의 마찰구간이 길어서 한국어에서 폐쇄구간이 상당히 긴 경음으로 차용되기가 힘든 것이다. 이것 또한 원음의 출력형과 차용어의 출력형간의 음성적 유사성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외래어차용에서 근원음과 차용음간의 음성단서 유사성에 입각하여 시대별로 달라진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화 정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음성단서간의 유사성이 영어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 2.3. 사용빈도에 따른 분석

해당 외래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어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Kim, 2016a; Kang, 2008).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외래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경음 차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외래어에서는 경음 차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6)에서 제시한 것처럼 최근에 차용되어 새롭게 사용되는 외래어에서도 어두 경음 차용은 이루어지고 있다.

(6) (Oh, 2009; Kim, 2016a)

dubbing [더빙] ~ [더빙], dumping [뎀핑] ~ [뎀핑], Bungee jump [뽀지점프] ~ [번지점프], dunk shot [뎅크슛], bunt [뽀트]

이와 같이 외래어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화를 사용빈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 2.4. 한국어 어두 경음화와 영어 유성 자음 경음화

영어 유성 자음이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을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Oh, 2004; Shin & Davis, 2004; Kim, 2016a). 한국어에서 평음이 어두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데 (7)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 (7) 한국어 어두 경음화

/세다/ [세다] ~ [췌다], /닭다/ [닥따] ~ [딱따], /중국/ [중국] ~ [췁국]

이와 같이 영어 유성 자음 경음화는 차용국어인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라는 일반적인 음운과정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영어 유성 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은 (2a)에서 보듯이 단어 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Kang (2008)은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과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1930년대에 비해 현대어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든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두 현상은 독립적이라고 Kang (2008)은 주장한다. 그러나 Park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순수 한국어 어휘의 4%와 한자어에서는 0.2%가 일정하게 어두경음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음화 비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또한 Kang (2008)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의 경우에는 원래 의미를 강조하거나 (예, [진하다]~[췌하다]) 비하하는 의미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예, [자식]~[짜식])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경우에도 [보이]에 비해 [뽀이]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Oh, 2009).

한국어 어두 경음화로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경우를 설명하면 (8)에 제시된 예에서처럼 영어 무성음도 경음으로 차용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8)

## a. 신승용 (2003: 135)

paint [페인트] ~ [뽀인트], pin [핀] ~ [뽀], pump [펌프] ~ [뽀뽀], point [포인트] ~ [뽀인트], chocolate [초코렛] ~ [췌코렛], tank [탱크] ~ [뽀끄]

## b. broker [뽀로까]

[펌프]에서 [어] 모음이 사용된다는 것은 ‘pump’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차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반면에 [뽀뽀]는 일단 영어 무성 폐쇄음이 일본어에 무성자음으로 차용되었다가 한국어에 평음으로 간접차용되어 어두에서 한국어의 경음화를 겪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broker’가 [뽀로까]로 차용되는 것은 직접 차용인 경우 자음군에 나타나는 영어 유성 폐쇄음은 결코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영어 유성 폐쇄음이 일단 일본어에 유성자음으로 차용되었다가 한국어에 평음으로 간접 차용되고 그 후에 한국어

5) 일본어에는 [어]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으므로 [어]로 차용되는 외래어는 영어에서 직접 차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모음이 자음에 비해 늦게 직접차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음이 [어]로 차용되었다는 것은 자음 역시 직접 차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Ito et al., 2006).



어두 경음화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Oh, 2009). 이와 같이 차용국어의 음운현상이 외래어 차용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장을 요약하면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 차용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영어 유성 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차용국어인 한국어에 있는 어두 경음화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근원음과 차용음간의 음성적 유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빈도 또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Kim, 2016b). 3장에서는 한국어의 어휘에서 보이는 경음-경음 선호 제약 또한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 차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 3. 한국어의 음소배열 제약과 영어 유성 자음 경음 차용

이번 장에서는 후행 자음이 [시]와 [쓰]인 경우에 선행 자음이 경음화 하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영어 유성 폐쇄음 경음 차용에서 한국어의 경음-경음 선호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어두 경음화는 경음-경음 연쇄를 더 선호하는 한국어 어휘 사전 (lexicon)의 패턴을 반영한다 (Kang & Oh, 2016). 우선 경음-경음 연쇄를 더 선호하는 한국어 어휘의 패턴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자. Ito (2014)는 2, 3음절짜리 명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첫 음절과 둘째 음절초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다.

표1. 2 음절어와 3 음절어 명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두음의 예상치대 관찰치 비율 (\* $p < 0.05$ )  
(Ito, 2014: 385)

$\sigma 2$ Onset $\sigma 1$ Onset	Aspirated	Tense	Lax	Sonorant
Aspirated	0.44 *	0.80	1.09	1.11
Tense	0.94	2.30 *	0.83	0.80
Lax	1.08	0.82 *	1.00	1.04
Sonorant	0.97	0.97	1.05	0.96

예상 관찰수 대비 실제 관찰수 비율이 1보다 크면 해당 음의 연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은 첫 자음이 경음이고 두 번째 자음이 경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Kang & Oh (2016)는 한국어 사전에서 명사를 포함한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Ito (201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음-경음 연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다.

표 2.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두음의 예상치대 관찰치 비율 (Kang & Oh, 2016: 18)<sup>6)</sup>

Word-initial onset	2 <sup>nd</sup> Onset					
	Lax	Tense	Aspirated	Nasal	Liquid	Vocoid
Lax	1.03	0.91	1.01	1.00	0.96	1.05
Tense	1.04	2.35	0.33	0.75	1.38	0.74
Aspirated	1.00	0.95	1.07	1.02	0.86	0.98

Ito (2014)와 Kang and Oh (2016)의 연구에서 각각 경음-경음 연쇄가 예상 관찰수 대비 실제 관찰수 비율이 1보다 훨씬 높은 2.30과 2.35 비율로 각각 나타난다. 이것은 첫 음절 두음이 경음이고 둘째 음절 두음이 경음인 경우가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Kang and Oh (2016)는 이와 같이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더 많이 나타나므로 후행 자음이 경음일 때 어두 경음화가 더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가 한국어 어휘에서 나타나는 경음-경음 연쇄 선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Kim (2016a)은 영어 유성 폐쇄음을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 정도 또한 경음-경음 연쇄를 더 선호하는 한국어 어휘 사전의 패턴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Kim (2016a)은 한국어 명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음-경음 연쇄가 기대치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다.

표 3.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두음의 예상치대 관찰치 비율 (Kim, 2016a: 272)

1 <sup>st</sup> Onset	2 <sup>nd</sup> Onset			
	Lax	Aspirated	Tense	Sonorants
Lax	1.02	1.01	0.92	1.00
Tense	0.41	0.82	3.72	0.90

Kim (2006a, b)은 이와 같이 경음-경음 연쇄음이 선호되기 때문에 영어 유성 폐쇄음을 한국어에 차용할 때 두 번째 음절에 경음이 있는 경우에 외래어 어두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국어원 (2007)에 나오는 310개의 외래어를 대상으로 판단실험을 실시한 Kim (2016a)의 연구에서 후행자음이 경음으로 나온 경우는 모두 [ㅍ]이다. 왜냐하면

6) Kang and Oh (2016: 18)의 표 8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인용논문의 표 8에서는 단어초와 두 번째 음절두음의 명칭이 잘못 표기되었다. 이에 표 2는 이를 바로잡아 인용한 것이다.

7) Ito (2014)는 한국어 어휘에서는 경음-경음 연쇄가 더 많이 나타나지만 인접하는 단어에 경음이 오는 경우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경음화 (사이시옷 현상)가 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경음 연쇄 제약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어두경음화와 복합어 경음화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모든 영어 무성 폐쇄음은 한국어에서 격음으로 그리고 유성 폐쇄음은 평음으로 차용되기 때문에 다른 경음이 단어 중에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음을 선행하는 경우와 단어말 위치에 있는 영어 /s/는 한국어에서 [ㅍ]으로 차용되고 자음군의 첫 /s/는 한국어에서 [시]으로 차용된다 (Kim, 1999): *massage* [마싸지] vs. *star* [스타]. 다시 말해서 [ㅍ]이 단어 중간에 경음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음이다. 그런데 Kim (2006a, b)에서 후행자음이 경음일 경우 외래어 어두 자음이 경음화를 더 겪는다는 근거는 후행자음이 [ㅍ]인 경우와 여타의 폐쇄음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Kim (2006a, b)은 보다 직접적으로 후행자음이 경음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어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더 선호되는 것이 영어 어두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더 차용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행 자음이 [ㅍ]인 경우와 [시]인 경우로 나누어 과연 어두 경음화가 후행자음이 [ㅍ]일 때 더 발생하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Oh (2009)에서는 한국어의 경음-경음 연쇄를 선호하는 음소배열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후행모음이 고모음이냐 여부에 초점을 두고 모음 앞의 영어 유성 폐쇄음이 어두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h (2009)에서 분석한 설문조사에서 후행 자음이 [ㅍ]인 경우와 [시]인 경우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영어 외래어 어두 경음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sup>8)</sup> 예를 들어 영어 /s/가 [시]으로 차용된 ‘desk’ [데스크], ‘ghost’ [고스트], ‘guest’ [게스트]에서 어두 경음화의 정도와 영어 /s/가 [ㅍ]으로 차용된 ‘dance’ [댄쓰]~[덴쓰], ‘juice’ [쥬쓰]~[주쓰]로 나누어 경음화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영어 어두 유성 폐쇄음 다음에 공명 자음이 바로 오는 외래어에 대한 분석도 덧붙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명의 광주 화자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 (1991)에 나오는 코퍼스 중에서 폐쇄음과 파찰음으로 시작하는 영어 외래어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정도를 설문조사한 Oh (2009)의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Oh (2009)에서는 영어 원음이 유성 폐쇄음 단독으로 시작하는 789개의 토큰을 대상으로 하고 (양순음, 315개; 치경음, 219개; 파찰음, 74개; 연구개음, 181개)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342개의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자음군이 유성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83개 타입 데이터를 합해 모두 425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한국어인 피실험자는 각 외래어가 어두 평음으로만 가능한 지, 평음이나 경음이 모두 가능한 지, 경음만 가능한 지를 표시하였다. 각각의 경우를 0점, 1점 그리고 2점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이것은 Oh (2009)의 결과에 자음군 결과를 더한 것이다.

8) Kim (2016a)에서는 두 번째 자음이 [ㅍ]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ㅍ]과 [시]이 바로 후행하는 자음이 아닐 수 있다. 가령 ‘journalist’ [저널리스트] 경우는 5 음절어로 4 음절 째에 [시]이 나오는 예이다.

표 4. 영어 외래어 어두 경음화 정도

영어 어두 자음	경음화 정도
/b/	15.6%
/d/	12.8%
/dʒ/	25.3%
/g/	19.1%
/DL/ <sup>9)</sup>	0%

본 연구에서는 후행 자음이 [쓰]인 경우와 [스]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영어 외래어 어두 경음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영어 유성 폐쇄음이 단독으로 오면서 후행 자음으로 [쓰]이 오는 것은 23개 데이터이며 영어 유성 폐쇄음이 단독으로 오면서 후행 자음이 [스]인 경우는 18개 데이터이고 유성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 중 ‘그로테스크’와 ‘브레스트’를 제외한 15개는 모두 [쓰]이 후행자음이다.<sup>10)</sup> 표 5는 영어 유성 폐쇄음이 단독으로 오는 경우에 후행하는 /s/가 [스]과 [쓰]으로 차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표 5. 영어 유성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외래어 다음에 [스]과 [쓰]이 오는 경우의 경음화 정도 비교 (\* $p < 0.05$ )

후행 자음	/쓰/	/스/	<i>p</i>
경음화 정도	0.528	0.09	0.001*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문조사에 20명의 피실험자가 참여하였고 영어 유성 폐쇄음이 어두에서 평음으로만 차용이 가능한 경우는 0점을, 평음이나 경음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1점을 그리고 경음만 가능한 경우에는 2점을 주었다. 표 5에서 보듯이 후행 자음이 /스/인 경우보다 /쓰/인 경우에 유성 폐쇄음 어두 경음화 값이 훨씬 높다. 즉 후행 자음으로 /쓰/이 오는 경우에 영어 유성 폐쇄음이 어두에서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높다. 참고로 유성 폐쇄음 다음에 [스]과 [쓰]이 오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외래어에 대한 경음화 평균값은 0.267이다. 자음군에서는 유성자음 다음에 [브레스트] ‘breast’ 처럼 [스]이 오든 [드레쓰] ‘dress’ 처럼 [쓰]이 오든 관계없이 어두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았다. 이에 표 5에서는 자음군에 유성자음이 오는 외래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영어 유성자음 뒤에 /s/가 오는 경우에 한국어에서 /s/를 [스]과 [쓰]로 차용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영어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쓰]이

9) /DL/은 유성자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을 의미한다 (예: glass).

10) 부록에 데이터를 제시한다.

오는 경우에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것은 곧 영어의 /s/가 한국어에서 [시]이나 [쓰]으로 차용되고 그 결과 음이 어두 유성 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Kim (2016a)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차용국어인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경음 연쇄음이 선호되기 때문에 후행 자음이 경음인 경우 영어 어두 유성 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Kang and Oh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격음 연쇄음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에서 0.33). 그렇다면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격음이 인접하는 경우 [쓰]이 인접한 경우에 비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외래어 코퍼스에서 영어 유성 폐쇄음이 어두에 나타나고 격음이 위치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일어나는 경우 (116개 데이터)와 두 번째 음절에 격음이 일어나는 경우 (80개 데이터)에 각각의 경음화 정도를 후행 자음이 [쓰]인 경우의 경음화 정도와 비교하여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고 표 6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sup>11)</sup>

표 6. 어두 유성자음 다음에 [쓰]과 격음이 오는 경우의 경음화 정도 t-검정 비교 (\* $p < 0.05$ )

경음화 비교	후행자음	경음화 정도	<i>t</i>	<i>p</i>
/쓰/과 격음비교	/쓰/	0.528	2.52	0.008*
	격음	0.194		
/쓰/과 두 번째 음절의 격음비교	/쓰/	0.528	2.17	0.01*
	두 번째 음절의 격음	0.235		

한국어에서 /s/이 격음인지 평음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Cho et al., 2002; Kang, 2000; Chang, 2013). 음성학적으로 후행 모음의 피치가 높고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를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격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폐쇄음 다음에서 경음화를 겪는다는 점에서는 평음과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단 후행 자음이 [시]과 [쓰]인 경우 어두 영어 유성 폐쇄음의 경음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영어 유성 폐쇄음 경음 차용이 후행 자음이 경음인 경우에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후행 자음이 폐쇄음 중에서 격음인 경우를 [쓰]와 비교한 것은 후행자음이 격음일 때는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인다.

요약하면 한국어 어휘에서 나타나는 경음-경음 연쇄 선호 제약은 영어 유성 폐쇄음을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행 자음이 [시]인 경우보다 [쓰]인 경우 어두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판단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11) Kang and Oh (2016)의 연구에서는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두음을 비교한 결과여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격음이 나타나는 경우와 어느 음절 위치이든지 격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제시하였다.

##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은 영어 어두 유성 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은 차용 국어인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주장한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경음 연속음을 선호하는 제약이 영어 어두 유성 자음을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외래어 코퍼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장하였다. Kim (2016a)에서는 후행 자음이 [ㅍ]인 경우와 기타 후행 자음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행 자음이 [ㅍ]인 경우와 [ㅅ]인 경우를 분리하여 영어 유성 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을 비교하여 경음-경음 연속음 선호 제약이 영어 어두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외래어 차용에서 차용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소배열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용국어의 음소배열 제약뿐만 아니라 영어 외래어 어두 경음화에서 중요한 요인은 근원어인 영어 출력형과 차용어의 출력형간의 충실성을 높이는 것이다 (Oh, 2004). 한국어 어두 경음화에서 후행 모음이 고모음이 아닐 때 경음화가 더 잘 일어난다 (Kim, 2016a). 마찬가지로 이러한 후행 모음의 높이 효과는 영어 유성 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Oh, 2009; Kim, 2016a). 즉, 외래어 어두 경음화는 후행 모음이 고모음이 아닐 때 더 많이 일어난다. Oh (2009)와 Kim (2016a)은 고모음 앞에서 어두 유성자음의 VOT가 길기 때문에 VOT가 짧은 한국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고모음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Oh (2009)에서는 후행 모음이 차용 국어인 한국어에 이미 차용이 이루어진 상태의 모음을 의미하고 Kim (2016a)에서는 후행 모음이 근원어인 영어 모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영어 고모음이어도 이완모음은 긴장모음과 달리 선행 자음의 VOT를 길게 하지 않는데도 (Nearey et al., 1994: 3) 영어 이완고모음인 /ɪ, ʊ/가 한국어에 /i, u/로 차용되고 이 모음들이 모두 어두 경음화를 덜 일으킨다는 점에서 후행 모음 높이 효과를 근원어의 VOT에 의존하여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영어 유성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나타나는 후행 모음 높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어에서 경음 다음에 오는 모음이 다른 폐쇄음 다음에서보다 유의미하게 길다 (Cho, 1996; Chung et al., 1999). 즉, 경음 다음에는 긴 모음이 기대되는데 고모음은 짧아서 고모음 앞의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영어 유성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나타나는 후행 모음 높이 효과를 한국어 경음 다음에 나타나는 모음 길이와 연결 짓는 분석은 자음군의 첫 유성 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 것도 설명해 준다. 자음 사이에 삽입되는 모음 [으]는 한국어에서 가장 짧은 모음이기 때문이다 (신지영 2014). 또한 영어 /s/가 한국어에 일단 [ㅅ]이나 [ㅆ]으로 차용되고 나서 그 차용음이 영어 어두 유성폐쇄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데 영향을 준다. 후행하는 자음이 [ㅍ]인 경우에 영어 유성 폐쇄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래어 차용은 근원어의 출력형

과 차용음 간의 음성적 유사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to (2014)는 연변 한국어를 대상으로 복합어 경음화 현상을 (복합어 사이시옷 현상) 연구하고 후행 단어든 선행 단어든 그 안에 경음이나 격음이 있으면 복합어 경음화가 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복합어 경음화와는 달리 한국어 어두 경음화와 영어 유성자음을 경음으로 차용하는 것은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선호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후행 자음이 경음일 때 더 일어난다 (Kang & Oh, 2016). 이렇게 경음이 인접해 있으면 복합어 경음화 비율은 낮아지고 어두 경음화 비율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합어 경음화는 인접한 두 단어의 경계를 표시한다. 만일에 인접자음으로 경음이 있는 경우에 복합어 경음화까지 일어난다면 단일 단어 내부에서 경음-경음 연쇄가 더 선호되므로 복합어인데도 단일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경음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복합어 경음화가 덜 일어나게 된다. 두 단어가 연결된 복합어의 뜻을 청자가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강희조, Robert Daland, pc.).

Kim (2016a)은 경음-경음 연쇄음 선호제약으로 인한 동화현상을 Ito (2014)의 분석을 따라 H1-H2의 동화현상으로 설명한다.<sup>12)</sup> 즉, 영어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은 후행 자음이 경음일 때 역행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CV.C'V'--> CV'.C'V'-> C'V'.C'V'). 선행 모음이 후행 자음의 킁킁대는 소리 (creaky voice)의 영향을 받고 다시 그 앞의 자음이 동화되어서 경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Kim (2016a)은 외래어 어두 경음화를 방향성을 지닌 동화현상으로 분석한다. Kang and Oh (2016)에서는 한국어 어두 경음화가 한국어 어휘에서 나타나는 경음-경음 선호 제약 때문에 후행 자음이 경음일 때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Kang and Oh (2016)의 분석 역시 경음-경음을 선호하는 제약으로 인한 역행동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경음-경음을 선호하는 제약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녔다가 보다 출력형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후행자음이 경음일 때 역행동화에 의해 앞 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선행자음이 경음일 때 후행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9)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자.

(9) a. 한국어

[조끔] (<-조금), [까딱] (<-가득), 쪼끄만 거 (<-조그마한 것), 뻔뻔 (<-번뜩), 딸까닥 (<-달가닥)<sup>13)</sup>

12) H1-H2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모닉(harmonic) 사이의 음세기 차이로 dB 수치로 나타낸다.

13) 한 심사자는 [조끔]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구글 검색을 통해 어떠한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조금(만)]은 515,000개, [쪼끔(만)]은 442,000개가 나오는데 [조끔(만)]의 경우는 3,920개가 검색되었다 (2017년 5월 29일 검색). [쪼끔]이 검색된다는 것은 어중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어중에 경음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쪼끔]은 [조끔]에 비해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자의 지적대로 본 연구에서 제

## b. 외래어

- i. [뽕땡] (<-빌딩), [쩨뽕] (<-점프), [폴끼퍼] (<-폴키퍼)
- ii. [쨌꼬] (<-쨌코), [까톡] (<-카톡), [뽕인뜨] (<-포인트), [땡꼬] (<-탱크), [뽕찌] (<-뽕지)<sup>14)</sup>

(9)의 예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9a)에서 보듯이 일단 어두 평음이 경음화를 겪으면 후행 자음도 경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어중의 영어 유성자음은 결코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으나 (9bi)에서 보듯이 [빌딩]에서 첫 자음이 경음화를 겪으면 ([뽕땡]) 두 번째 자음인 [ㄷ] 역시 경음으로 실현되어 [뽕땡]이 된다.<sup>15)</sup> 두 번째는 영어 유성자음에서 차용된 평음뿐만 아니라 영어 무성자음에서 차용된 격음도 어두 경음화를 겪고 후행 자음 역시 경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 [쨌코]-> [쨌꼬]). 나아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어휘인 <카톡> 경우를 구글 검색한 결과 <카톡> (66,500,000)> <까톡> (417,000)> <까톡> (385,000)> <카톡> (146,000) 순으로 검색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2월 27일 구글 검색). 이것은 일단 첫 자음이 경음으로 발음되면 후행 자음도 경음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행 경음으로 말미암아 어두 평음이 경음화를 겪는다고보다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에서 보이는 경음-경음 선호 제약이 방향성에 관계없이 출력형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아빠뜨] (<-아파트) 같은 예는 비록 어두에서 경음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지만 경음-경음 선호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Kang and Oh (2016)는 한국어 어휘에서 경음-경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한국 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후행 자음이 경음일 때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Kim (2016a)은 영어 유성 자음을 어두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경음-경음 선호현상이 나타나지만 한국어 어두 경음화에서는 이러한 경음-경음 선호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Ito and Mester (1995)는 일본어 어휘 구조가 핵심-주변 구조(core-periphery)로 되어 있어서 중심부에 있는 일본어 고유어는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외래어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가령 비음 다음에 유성음이 와야 한다는 제약 (Postnasal Voicing)이 일본어 고유어에서는 지켜져서 /kanta/라는 입력형에서 [kanda]라는 출력형

---

시한 경향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체계적으로 발견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14) 사실 'badge'는 <뽕>로 차용되므로 [뽕찌]에서 [쯔]는 자음 뒤 파찰음이 경음화를 겪은 것이지 어두 경음의 영향을 받은 경음 차용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message'의 마지막 자음은 [dʒ]로 'badge'의 마지막 자음과 같은 파찰음이어도 [메시지]로 차용되어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메시찌]).
- 15) 어두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l] 뒤의 유성자음이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 'holding' [홀딩] \* [홀땡], 'molding' [몰딩] \* [몰땡], 'wellbeing' [웰빙] \* [웰땡].
- 16) 영어 무성폐쇄음은 경음화를 겪을 여지가 있지만 영어 유성 마찰음 [v]는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 'venus' [비너쓰] \* [뽕너쓰].



이 나오지만 외래어로 /kanta/라는 입력형이 들어오면 (Postnas Voicing) 제약을 어기면서 입력형에 충실한 [kanta]라는 출력형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유어에서는 보다 많은 제약을 받으나 주변 어휘에 속하는 외래어에서는 음운제약이 느슨하게 적용된다. Shin (1997)은 한국어 어휘도 일본어 어휘와 마찬가지로 핵심-주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고유어> <한자어> 의성의태어> 외래어 순서로 중심에 있는 어휘라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어에서 전설모음화 (umlaut)는 한국어 고유어에는 적용되나 (예: /다리미/--> [대리미]) 한자어나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darling’ [달링] \*[델링]). 이렇게 한국어 어휘가 핵심-주변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Kim (2016a)의 주장대로 외래어 어두 경음화가 한국어 어휘 사전에 나타나는 경음-경음 음소배열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면 왜 외래어는 한국어 어휘 패턴을 반영하고 오히려 한국어 어두 경음화에서는 경음-경음 선호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가? 다시 한국어 사전을 면밀하게 경음-경음 제약에 비추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영어 어두 유성 자음을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차용하는 경우를 연구하여 근원음을 차용할 때 해당 음의 음성단서뿐만 아니라 인접 음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외래어 모양이 근원어와 유사해지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차용국어의 음운현상과 차용국어 어휘가 보이는 특정한 음소배열 제약이 외래어 차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영어 [b]와 [v]는 한국어에 차용될 때 어두에서 모두 평음으로 차용되지만 영어 [b]가 차용된 평음만 경음으로 차용되고 (예, ‘back’ [백]) 영어 [v]에서 차용된 평음은 경음으로 차용되지 않는다 (예, ‘veil’ [베일] \*[뵤일]). 영어 [b]는 한국어에서 [p]로 차용된 뒤 경음화를 거치는데 영어 [v]는 [p]로 차용된 뒤 경음화를 거쳐 [pʰ]로 차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외래어 차용에서 근원음과 최종 차용음간의 음성적 유사성 거리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뵤인뜨] (<-[pʰɪnt] ‘point’)처럼 영어 [pʰ]와 한국어 경음인 [뵤]간의 폐쇄구간의 격차는 허용 가능하지만 [비너쓰] \*[뵤너쓰] (<-[vɪnəs] ‘venus’)처럼 영어 [v]와 한국어 경음인 [뵤]간의 폐쇄구간 격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외래어 차용이 인지단계를 거쳐 실행 단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Silverman (1992)의 두 단계 이론과 배치된다. 일단 인지 단계에서 차용국어에서 가능한 음소로 차용되었는데도 원래 영어 유성자음에서 차용된 [p]는 경음으로 차용될 수 있지만 영어 마찰음 [v]에서 차용된 [p]는 경음화를 겪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영어 어두 유성자음이 한국어에 경음으로 차용되는 것이 한국어 어두 경음화의 일반적인 현상을 따르는 것이라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아울러 근원음과 차용음간의 음성적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1). *외래어 사용실태조사: 1990년도*.  
 국립국어원. (2007). *외래어 표기법*.
- 김숙자 (2007). *일본어 외래어*. 서울: 제이엔씨 출판사.
- 신승용. (2003). 영어 차용어의 자음 대응 원칙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35, 71-99.
- 신지영. (2014). *한국어의 말소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이종극. (1937). *모던 조선외래어 사전*. 서울: 한성도서 주식회사.
- Chang, C. (2013). The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coronal fricatives in Seoul Korean. *Korean Linguistics*, 15(1), 1-46.
- Cho, T. (1996). Vowel correlates to consonant phonation: an acoustic-perceptual study of Korean obstr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Cho, T., Jun, S., & Ladefoged, P. (2002). Acoustic and aerodynamic correlates of Korean stop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30(2), 155-190.
- Chung, H., Kim, K., & Huckvale, M. (1999). Consonantal and prosodic influences on Korean vowel duration. In *Proceedings of Eurospeech*, 99. Budapest, Hungary.
- Daland, R., Oh, M., & Kim, S. (2015). When in doubt, read the instructions: Orthographic effects in loanword adaptation. *Lingua*, 159, 70-92.
- Hyman, L. (1970). The role of borrowing in the justification of phonological grammar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 1 - 48.
- Ito, C., Kang, Y., & Kenstowicz, M. (2006). The adaptation of Japanese loanwords into Korea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52, 65-104.
- Ito, J., & Mester, A. (1995). Japanese phonology. In J. A. Goldsmith (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817-838. Cambridge, Mass.: Blackwell Publishers Ltd.
- Ito, J. (2007). Morpheme structure and co-occurrence restrictions in Korean monosyllabic stem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3, 373-394.
- Ito, J. (2014). Compound tensification and laryngeal co-occurrence restrictions in Yanbian Korean. *Phonology*, 31, 349-398.
- Kang, K. (2000). On Korean fricatives. *음성과학*, 7(3), 53-68.
- Kang, H., & Oh, M. (2016). Dynamic and static aspects of laryngeal

- co-occurrence restrictions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2(1), 3-34.
- Kang, Y. (2003). Perceptual similarity in loanword adaptation: English postvocalic word-final stops in Korean, *Phonology*, 20, 1-56.
- Kang, Y. (2008). Tensification of voiced stops in English loanwords in Korea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II*.
- Kang, Y., Kenstowicz, M., & Ito, C. (2007). *Hybrid loans: a study of English loanwords transmitted to Korean via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4<sup>th</sup>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nology and Morphology, Hanyang University, Korea.
- Kawahara, S. (2008). Phonetic naturalness and unnaturalness in Japanese loanword phonolog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 317 - 330.
- Kim, D. (2002). The vowel length as a function of the articulatory force of the following consonants in Korean. *Speech Sciences*, 9(3), 143-154.
- Kim, H. (2016a). Contextual distribution of English loanword word-initial tensification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2(2), 245-288.
- Kim, H. (2016b). Phonological trends in English loanword word-initial tensification in Korean. 국제음운론학회, 서울대학교.
- Kim, S. (1999). *Subphonemic duration difference in English /s/ and few-to-many borrowing from English to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Kim, S. (2003), A[n] analysis of writing loanwords in the dictionary of modern-Joseon-loanwords. [In Korean], *The Society of Ewh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1, 249-271.
- Klatt, D. (1975). Voice onset time, frication, and aspiration in word-initial consonant clust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8, 686-706.
- LaCharité, D., & Paradis, C. (2005). Category preservation and proximity versus phonetic approximation in loanword adaptation. *Linguistic Inquiry*, 36, 223-258.
- Nearey, M., & Rochet, B. (1994). Effects of place of articulation and vowel context on VOT production and perception for French and English stops. *Journal of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24(1), 1-19.
- Oh, M. (2004). English stop adaptation as output-to-output correspondence.

- Phonological Studies*, 9, 165-172. The Phonological Society of Japan.
- Oh, M. (2009).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English voiced stop. *SFU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Simon Fraser University, [http://www.sfu.ca/gradlings/working-papers/wp\\_2.html](http://www.sfu.ca/gradlings/working-papers/wp_2.html).
- Shin, S. (1997). Umlaut in Kyungsang Korean. In H.-M. Sohn, & J. Haig (Eds.),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VI*, 283-302.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and SLA.
- Silva, D. (2006). Variation in voice-onset time for Korean stops, *Korean Linguistics*, 13, 1-19.
- Silverman, D. (1992). Multiple scansion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9, 289-32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S., & Davis, S. (2004). Where have all the lax stops gone?: on the possibl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stop system. In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13*. Stanford, CA: CSLI.
- Vendelin, I., & Peperkamp, S. (2006). The influence of orthography on loanword adaptations. *Lingua*, 116, 996-1007.

부록

영어 유성자음으로 시작하면서 후행 자음에 /s/가 들어가 있는 영어 외래어 목록<sup>17)</sup>

영어 어두 유성자음 뒤에서 /s/가 [ㅍ]으로 차용된 외래어		영어 어두 유성자음 뒤에서 /s/가 [ㅅ]으로 차용된 외래어	
외래어	영어	외래어	영어
박카스	bacchus	바스켓	basket
베이스	bass	베스트	best
바순	bassoon	데스크	desk
바이오스	BIOS	디스코	disco
봅슬레이	bobsleigh	디스카운트	discount
보너스	bonus	디스커버	discover
보스	boss	디스커션	discussion
박스	box	디스크	disk
복서	boxer	디스켓	diskette
복싱	boxing	디스플레이	display
버스	bus	갱스터	gangster
댄스	dance	제스처	gesture
댄서	dancer	가스펠	gospel
댄싱	dancing	저널리스트	journalist
디베이스	debase	조이스틱	joystick
디바이스	device	바스트	bust
도스	dose	게스트	guest
가스	gas	고스톱	go-stop
가솔린	gasoline		
가우스	gauss		
까십	gossip		
집시	gypsy		
주스	juice		

오미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 530-3165  
 이메일: mroh@jnu.ac.kr

Received on February 13,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0, 2017  
 Accepted on June 30, 2017

17) 영어 어말 /s/가 차용어에서 [ㅅ]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어에서 [ㅍ]로 차용된다 (Kim, 1999).